김규호 더밸류연구소 연구원 / 핵심 결과

캐피탈사 20곳 조달비용률, 고점보다 낮고 2022년보다 높다

외국계 5곳을 뺀 표본 20곳, FISIS 2022.1Q~2026.2Q 18개 분기와 DART 자금조달실적

표본 20곳 합산 조달비용률은 2022.1Q 2.06%에서 2024.4Q 4.17%까지 올랐다가 2026.2Q 3.65%로 고점보다 낮아졌지만 2022.1Q보다는 높다.
2026.2Q는 직전 분기(3.60%)보다 약 0.06%p 올랐다(20곳 중 16곳 상승). 추세가 바뀌었는지는 이 자료로 판단하지 않는다.
차입부채 중 사채 비중은 2021.12 81.7%에서 2026.06 87.0%가 됐다.

> 조달비용률(20곳 합산, 연율)
>
> **2.06% → 4.17% → 3.65%**
>
> 2022.1Q → 2024.4Q(최고) → 2026.2Q

지표	값	기준
사채 비용률(합산)	2.08% → 4.22% → 3.68%	2022.1Q → 2024.4Q → 2026.2Q
차입금 비용률(합산)	1.96% → 3.89% → 3.49%	2022.1Q → 2024.4Q → 2026.2Q
사채 비중(차입부채 중)	81.7% → 87.0%	2021.12 → 2026.06
2026.2Q 비용률 최고·최저	OK캐피탈 5.80%, IBK캐피탈 3.36%	20곳 중
2022.1Q보다 높은 회사	20곳 중 20곳	2026.2Q 기준
직전 분기보다 높은 회사	20곳 중 16곳	2026.1Q → 2026.2Q
DART 이자율과 FISIS 비용률 차이 0.2%p 이내	79건 중 74건	16곳, 2022~2025 연간·2026 상반기. 평잔 산식·연결·별도 기준 차이는 남는다

대상: 분석 A 표본 25곳(할부·리스사 총자산 1조원 이상 23곳 + 신기술금융사 2곳, 2026.06 기준)에서 외국계 5곳(BMW파이낸셜·벤츠파이낸셜·폭스바겐파이낸셜·RCI파이낸셜·오릭스캐피탈)을 뺀 20곳. 조달비용률 = 분기 이자비용 × 4 ÷ [(분기초 차입부채 + 분기말 차입부채) ÷ 2], 차입부채 = 차입금 + 사채. FISIS 이자비용은 차입금이자·사채이자·요구불상환지분이자(표본 전 기간 0)로 구성되며, 리스부채 이자 같은 다른 이자성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이 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원인 해석과 평가는 하지 않는다.

02 합산 추이 / 03 조달 구성 / 04 소속별 / 05~07 회사별 / 08 DART 자금조달실적 / 09 DART 대조 / 10 DART 구성 / 11 방법론

자료: DART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자금조달실적, FISIS 111V·023V / 더밸류연구소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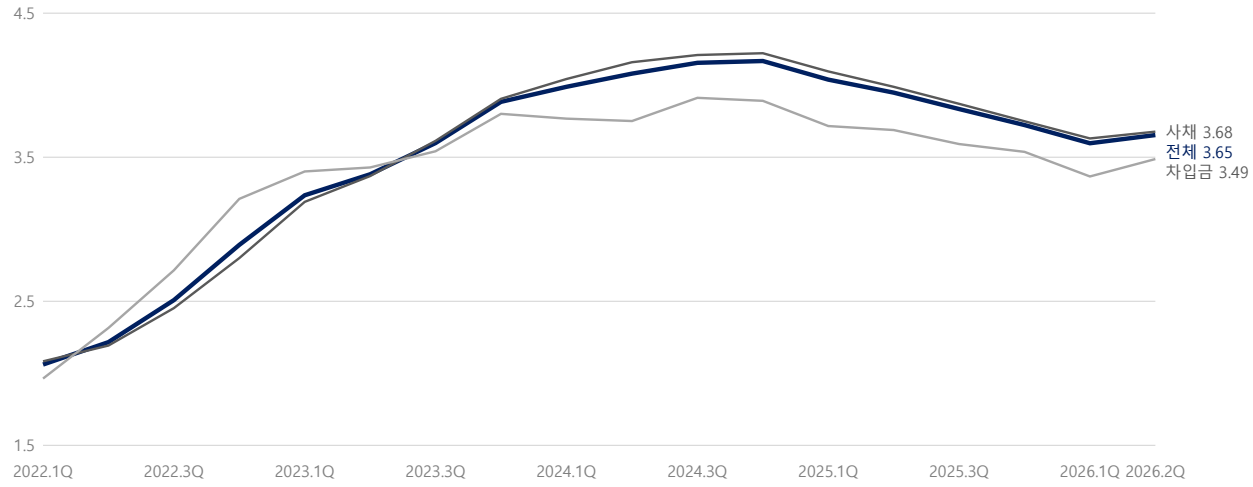
조달비용률은 2024.4Q에 가장 높았다

표본 20곳 합산, 회사 금액을 더한 뒤 나눈 값

20곳 합산 조달비용률은 2024.4Q에 4.17%로 18개 분기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분기는 2024.3Q 4.16%다. 이후 2026.1Q 3.60%까지 낮아졌고 2026.2Q는 3.65%로 직전 분기보다 약 0.06%p 올랐다.

분기별 조달비용률(연율)

단위: %, 세로축 1.5%부터



■ 전체(이자비용/차입부채) ■ 사채(사채이자/사채) ■ 차입금(차입금이자/차입금)

분기	전체	사채	차입금	차입부채 분기말(조원)
2022.1Q	2.06	2.08	1.96	149.6
2022.2Q	2.22	2.19	2.32	158.5
2022.3Q	2.51	2.45	2.71	160.8
2022.4Q	2.89	2.80	3.21	160.1
2023.1Q	3.24	3.19	3.40	158.9
2023.2Q	3.38	3.37	3.43	160.7
2023.3Q	3.60	3.61	3.54	160.9
2023.4Q	3.89	3.91	3.80	160.8
2024.1Q	3.99	4.04	3.77	161.4
2024.2Q	4.08	4.16	3.75	161.3
2024.3Q	4.16	4.21	3.91	162.4
2024.4Q	4.17	4.22	3.89	165.8
2025.1Q	4.04	4.10	3.72	162.8
2025.2Q	3.95	3.99	3.69	166.5
2025.3Q	3.84	3.87	3.59	170.9
2025.4Q	3.72	3.75	3.54	174.6
2026.1Q	3.60	3.63	3.37	178.1
2026.2Q	3.65	3.68	3.49	181.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 통계표 111V·023V / 더밸류연구소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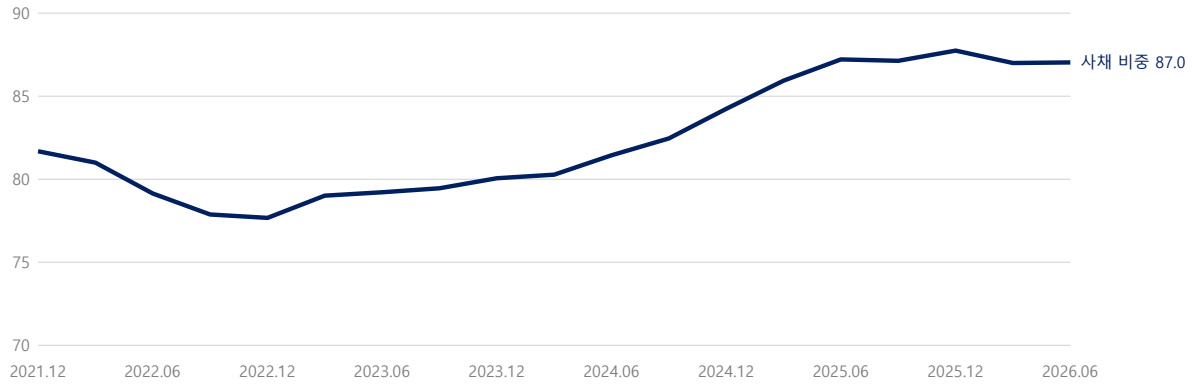
차입부채 중 사채 비중

표본 20곳 합산, 2021.12~2026.06 19개 분기말

차입부채 중 사채 비중은 2022.12 77.7%까지 낮아졌다가 2026.06 87.0%가 됐다. 20곳 중 17곳은 2026.06 사채 비중이 2021.12보다 높다. 차입부채 합계는 142.8조원에서 181.2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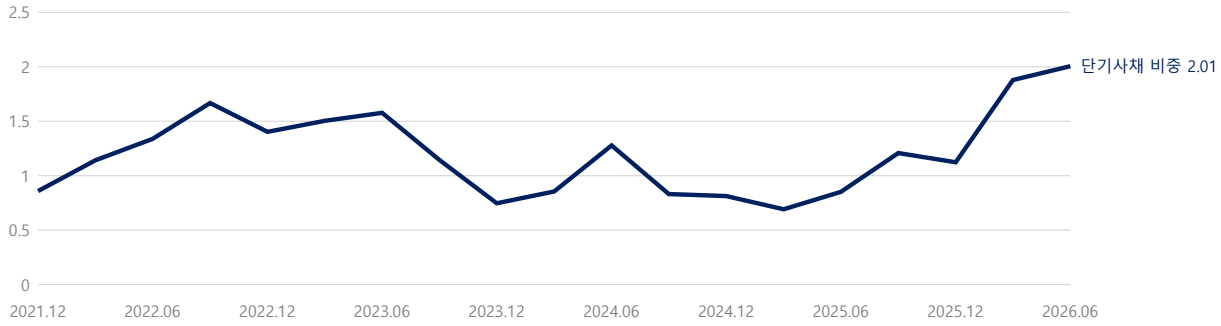
차입부채 중 사채 비중

단위: %, 세로축 70%부터



차입부채 중 단기사채 비중

단위: %. FISIS 023V 단기사채(C1) 계정, 2021.12 0.86% → 2026.06 2.01%



사채 = 단기사채 + 유동성사채 + 장기사채(발행차금 차감). 차입금 = 콜머니·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장기차입금 등. FISIS 023V에는 기업어음(CP)·자산유동화(ABS) 행이 없어, 이 보고서에서는 DART 자금조달실적(뒤쪽)에 따로 적은 회사만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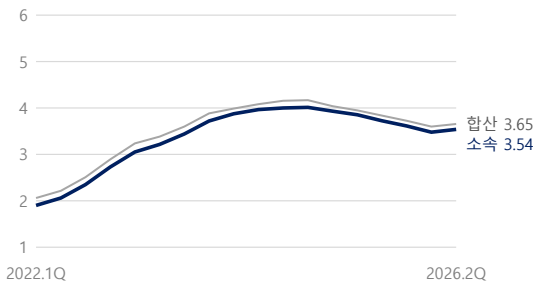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 통계표 111V·023V / 더밸류연구소 계산

김규호 더밸류연구소 연구원 / 소속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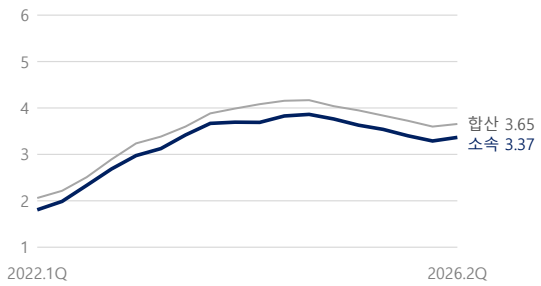
소속별 조달비용률

소속 안 회사 금액을 더한 뒤 나눈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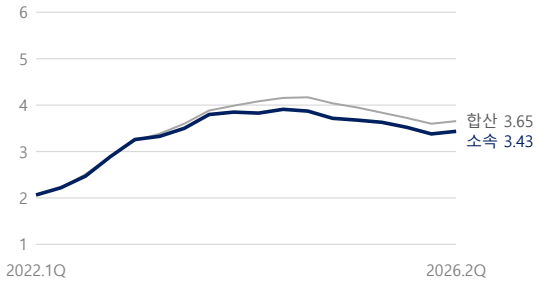
은행·금융지주 계열 (8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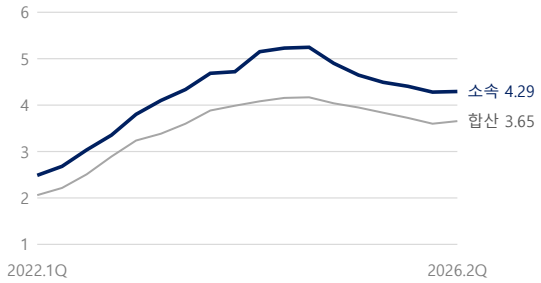
국책은행 계열 (2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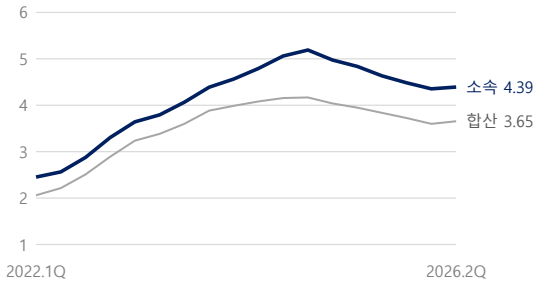
자동차 제조사 계열 (2곳)



비은행 금융그룹 계열 (4곳)



기타 (4곳)



단위: %, 세로축 1%부터. 남색 = 소속 합산, 회색 = 20곳 합산

소속	회사	2022.1Q	최고(분기)	2026.2Q	사채 비중 2021.12 → 2026.06
은행·금융지주 계열	8	1.90	4.01 (2024.4Q)	3.54	88.5 → 94.2
국책은행 계열	2	1.81	3.86 (2024.4Q)	3.37	83.3 → 86.1
자동차 제조사 계열	2	2.07	3.91 (2024.3Q)	3.43	73.1 → 76.4
비은행 금융그룹 계열	4	2.49	5.25 (2024.4Q)	4.29	73.8 → 87.3
기타	4	2.45	5.19 (2024.4Q)	4.39	81.3 → 82.0

은행·금융지주 계열: BNK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NH농협캐피탈, iM캐피탈, 신한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하나캐피탈 / 국책은행 계열: IBK캐피탈, 산은캐피탈 / 자동차 제조사 계열: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 비은행 금융그룹 계열: OK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키움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 기타: 롯데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엠지캐피탈, 한국캐피탈. 소속은 DART 최대주주 기준(분석 A와 같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 통계표 111V·023V / 더밸류연구소 계산

김규호 더밸류연구소 연구원 / 회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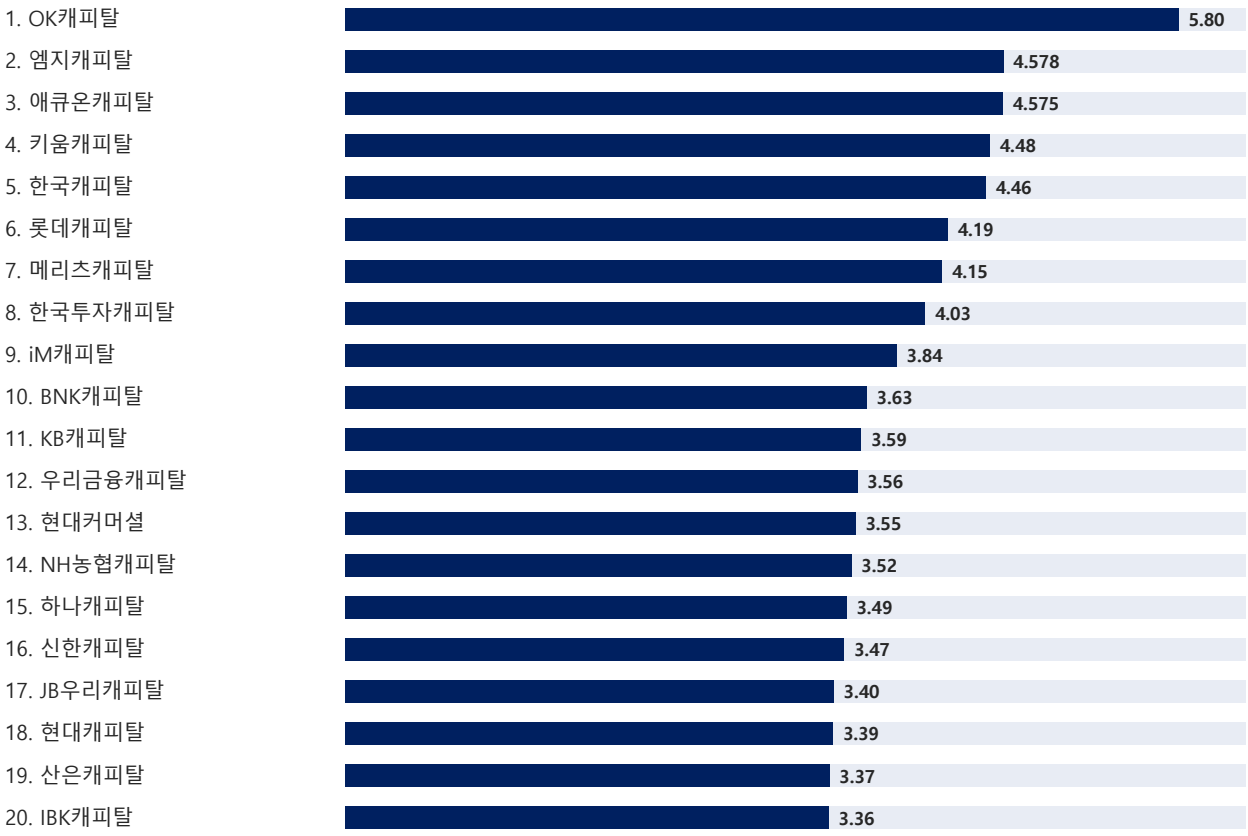
회사별 조달비용률, 2026년 2분기

표본 20곳, 높은 순

2026.2Q 조달비용률은 OK캐피탈이 5.80%로 가장 높고 IBK캐피탈이 3.36%로 가장 낮다. 순위는 반올림 전 값으로 매겨 같은 순위가 없다. 둘째 자리까지 같은 한 쌍(엠지캐피탈·애큐온캐피탈)은 셋째 자리까지 적었다.

회사별 조달비용률, 2026년 2분기(연율)

단위: %



조달비용률 = 2026.2Q 이자비용 × 4 / 차입부채 2026.03·06 말 평균. 분기 값이라 한 분기의 일시 비용이 그대로 반영된다. FISIS 이자비용은 차입금이자·사채이자·요구불상환지분이자의 합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 통계표 111V·023V / 더밸류연구소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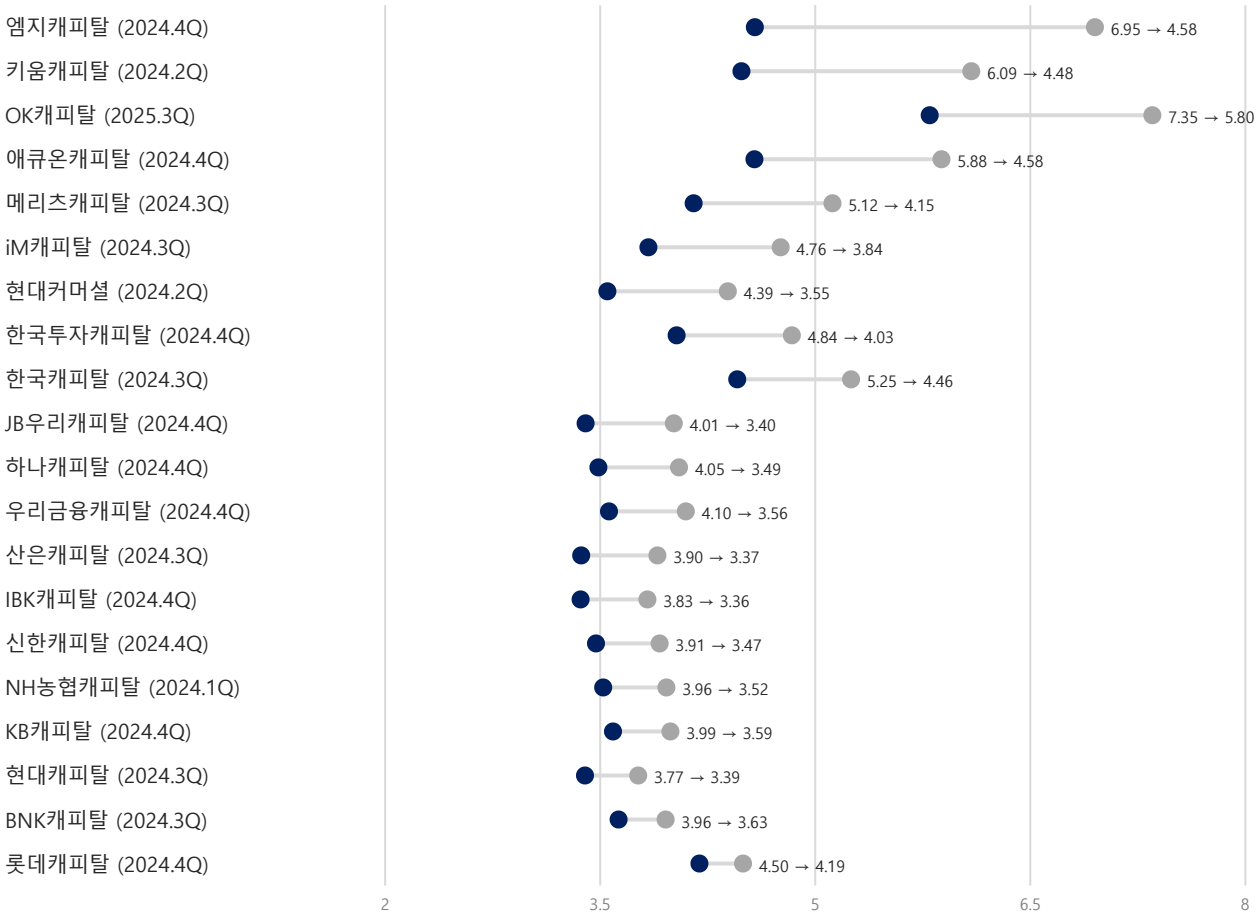
회사별 최고 분기와 2026년 2분기

2022.1Q~2026.2Q 중 회사별 최고 분기 기준, 차이가 큰 순

회사마다 가장 높았던 분기는 2024.1Q~2025.3Q에 걸쳐 있다. 최고 분기 대비 2026.2Q 차이는 엠지캐피탈이 -2.37%p로 가장 크고 롯데캐피탈이 -0.30%p로 가장 작다.

최고 분기(회색) → 2026.2Q(남색)

단위: %, 가로축 2%부터, 괄호는 최고 분기(반올림 전 값 기준. 산은캐피탈은 둘째 자리까지 같은 분기가 있어 반올림 전 값으로 골랐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 통계표 111V·023V / 더밸류연구소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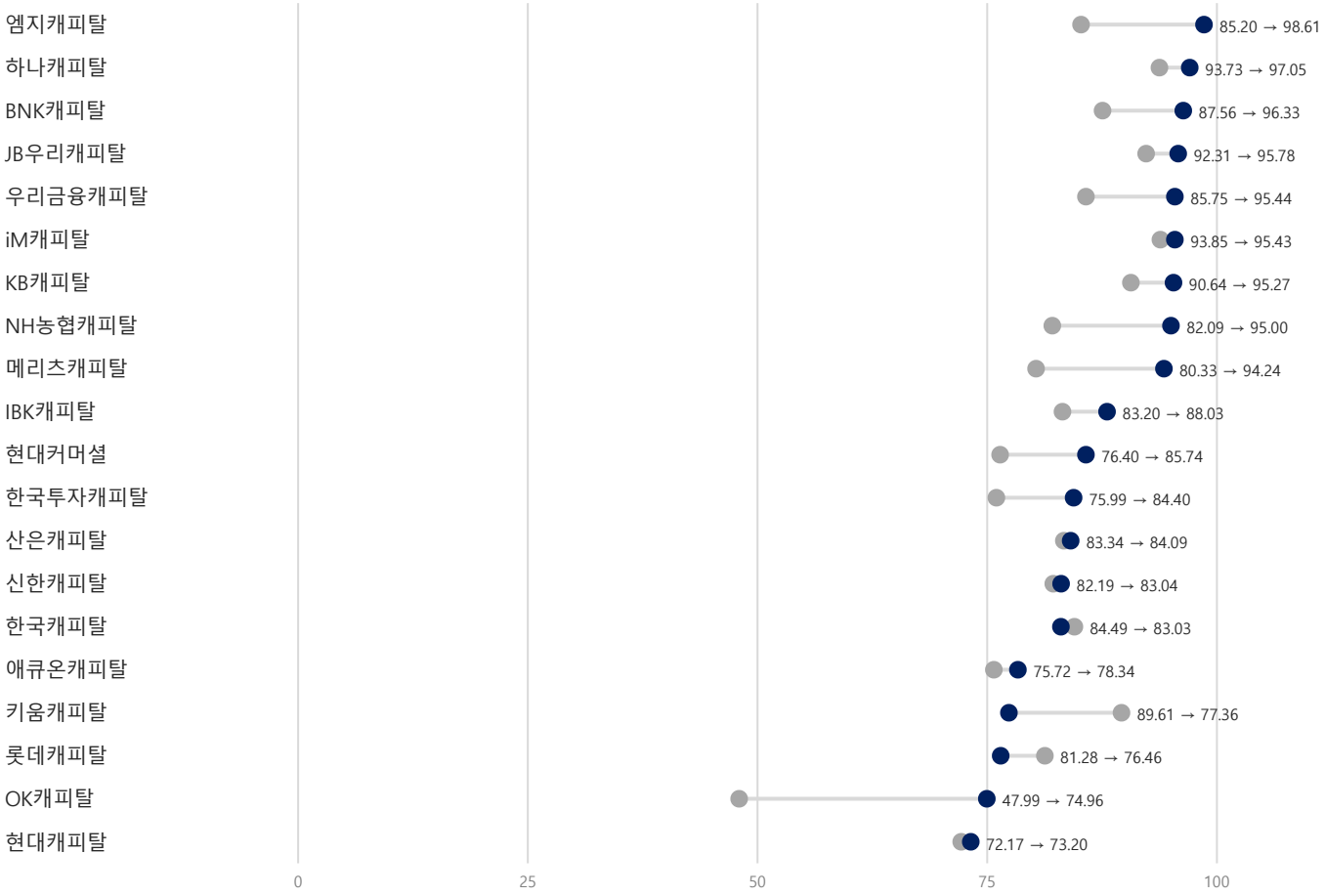
회사별 사채 비중

표본 20곳, 2026.06 높은 순

2026.06 사채 비중은 20곳 모두 70%를 넘고, 가장 낮은 곳은 현대캐피탈(73.2%)이다.

차입부채 중 사채 비중, 2021.12(회색) → 2026.06(남색)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 통계표 111V·023V / 더밸류연구소 계산

DART 자금조달실적, 어디까지 읽었나

표본 20곳의 2021.12~2026.06 정기보고서

DART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에 있는 자금조달실적 표를 회사·보고서별로 확인했다. 표본 20곳의 정기보고서 378건(OK캐피탈 17건, 나머지 19건씩) 중 358건은 코드로 읽었고(이자율을 읽은 회사 16곳), 애큐온캐피탈 19건은 이자율이 없는 금액 표라 뺐다. 한국캐피탈 2021.12는 수집본이 첨부정정 공시라 본문이 없어 읽지 못했다. 표 이름이 회사마다 달라(자금조달실적, 자금조달 내용, 자금조달 및 운용내용 등) 이름을 넓게 찾고, 예외 목록 밖 보고서를 못 읽으면 멈추게 했다.

회사	보고서	읽은 결과	표에 적힌 기준(원문 요약)
BNK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9	업무보고서상 기중평잔 기준
IBK캐피탈	19	평잔·구성만(이자율 없음) 19	표 제목 (별도기준). 사채할인발행차금 차감 전 액면 조달액 기준, 전자단기사채 포함
JB우리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9	사할차 및 현할차 차감 전 기준으로 잔액 표시
KB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9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기중평잔 기준,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NH농협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9	표에 기준 표기 없음
OK캐피탈	17	이자율 있음 17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기중평잔 기준, 별도재무제표 기준(2025.12 사업보고서)
iM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9	K-IFRS 별도기준
롯데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9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
메리츠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9	표에 기준 표기 없음
산은캐피탈	19	평잔·구성만(이자율 없음) 19	표에 기준 표기 없음
신한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9	상위 제목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연결기준)'
애큐온캐피탈	19	추출 제외 19	K-IFRS 별도 기준
엠지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9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우리금융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9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키움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9	표에 기준 표기 없음
하나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7, 평잔·구성만(이자율 없음) 2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로 환산. 반기 실적은 리스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이자비용·리스부채 이자비용 등 제외
한국캐피탈	19	기말 금액·구성만(이자율 없음) 18, 추출 제외 1	표에 기준 표기 없음
한국투자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9	이자율은 가중평균이자율로 연환산, 별도재무제표 기준
현대캐피탈	19	이자율 있음 19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자산유동화증권은 차입금 중 내역으로 따로 표시
현대커머셜	19	이자율 있음 19	평균 조달금리 = 지급비용액/기중평잔×365/기중일수,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

이자율 없음: 산은캐피탈(평균잔액·비중), IBK캐피탈(금융평잔·기말잔액·잔액구성비), 하나캐피탈 2022.03·06, 한국캐피탈(금액·구성비, 합계가 그 시점 총자산과 같아 기말금액으로 봄). 추출 제외: 애큐온캐피탈(금액 3줄).

자료: DART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자금조달실적, FISIS 111V·023V / 더밸류연구소 계산

김규호 더밸류연구소 연구원 / DART 대조

DART 이자율과 FISIS 조달비용률

자금조달실적에 이자율을 적은 16곳

DART 자금조달실적의 차입 행(사채·차입금·CP·ABS·콜머니) 평잔 가중 이자율과 FISIS로 계산한 같은 기간 조달비용률을 2022~2025년 연간과 2026년 상반기 79개 회사-기간에서 대조했다. 74건은 차이가 0.2%p 이내였으며, 두 자료의 산정 기준(평잔 산식, 연결·별도 범위) 차이는 남는다. 0.2%p를 넘은 것은 KB캐피탈 2022 +0.77%p, 엠지캐피탈 2025 +0.42%p, 엠지캐피탈 2024 +0.25%p, NH농협캐피탈 2024 +0.23%p, 하나캐피탈 2023 +0.22%p이다.

회사	2024 DART	FISIS	차이	2025 DART	FISIS	차이	2026상 DART	FISIS	차이
BNK캐피탈	3.85	3.85	0.00	3.81	3.79	+0.03	3.64	3.58	+0.07
JB우리캐피탈	3.97	3.92	+0.05	3.83	3.77	+0.05	3.50	3.41	+0.09
KB캐피탈 (연결)	4.02	3.91	+0.11	3.88	3.77	+0.11	3.64	3.53	+0.10
NH농협캐피탈	4.11	3.88	+0.23	3.74	3.70	+0.04	3.49	3.48	+0.02
OK캐피탈	6.49	6.46	+0.03	6.63	6.80	-0.16	-	-	-
iM캐피탈	4.74	4.65	+0.10	4.30	4.19	+0.10	3.92	3.82	+0.11
롯데캐피탈	4.29	4.27	+0.02	4.41	4.41	0.00	4.26	4.18	+0.08
메리츠캐피탈	4.96	4.99	-0.03	4.50	4.38	+0.11	4.17	4.12	+0.05
신한캐피탈 (연결)	3.84	3.82	+0.01	3.60	3.65	-0.05	3.41	3.42	-0.01
엠지캐피탈	6.43	6.18	+0.25	5.96	5.54	+0.42	4.58	4.52	+0.06
우리금융캐피탈 (연결)	4.03	4.05	-0.01	3.76	3.81	-0.05	3.58	3.53	+0.05
키움캐피탈	5.88	5.94	-0.06	4.96	4.94	+0.02	4.48	4.48	0.00
하나캐피탈	4.01	4.01	-0.01	3.80	3.79	+0.01	3.52	3.49	+0.03
한국투자캐피탈	4.27	4.38	-0.10	4.38	4.30	+0.08	4.18	4.06	+0.12
현대캐피탈	3.68	3.71	-0.03	3.55	3.55	0.00	3.43	3.37	+0.06
현대커머셜	4.34	4.32	+0.01	3.87	3.87	0.00	3.58	3.52	+0.06

단위: %, %p. DART 이자율은 회사가 적은 행별 이자율을 평잔으로 가중했다(자기자본·기타부채·보증금 행은 뺌). 회사가 적은 합계 이자율은 자기자본까지 넣은 회사가 있어 쓰지 않았다(예: KB캐피탈 2025년 합계 3.25%). FISIS 비용률 = 기간 이자비용 합 × (4/분기 수) / 분기별 차입부채 평균의 평균. 차이는 반올림 전 값으로 계산해 표의 두 값을 뺀 것과 0.01%p 다를 수 있다. DART는 기중평잔(업무보고서 기준), 기초·분기말 단순평균 등 회사마다 평잔 산식이 달라 분모가 같지 않다. (연결)은 표에 연결 기준이라고 적은 회사다. DART 평잔 차입 합계는 FISIS 평균 차입부채와 대조한 79건 모두 ±3% 안이다(0.97~1.03배, 데이터북). 원문 이자율이 소수 첫째 자리인 회사(현대캐피탈·엠지캐피탈·NH농협캐피탈)는 가중값 둘째 자리에 반올림 영향이 있다.

자료: DART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자금조달실적, FISIS 111V·023V / 더밸류연구소 계산

DART 자금조달실적의 조달수단 구성

차입 평잔 기준, 2022년과 2026년 상반기

DART 표는 회사가 정한 항목으로 나눠 CP·ABS·외화를 따로 적은 회사가 있다. 차입 평잔 합계를 100으로 놓은 구성이다.

회사	2022 사채	차입금	CP	ABS	이 중 외화(중복 포함)	2026상 사채	차입금	CP	ABS	이 중 외화(중복 포함)
BNK캐피탈	84.4	15.6	-	-	-	95.6	4.4	-	-	-
IBK캐피탈	78.9	21.1	-	-	-	89.1	10.9	-	-	0.2
JB우리캐피탈	87.7	1.4	10.8	-	-	94.9	0.0	5.1	-	-
KB캐피탈	86.5	13.5	-	-	-	94.1	5.9	-	-	-
NH농협캐피탈	79.7	20.3	-	-	-	95.5	4.5	-	-	-
OK캐피탈	77.6	20.3	2.1	-	-	-	-	-	-	-
iM캐피탈	91.4	8.6	-	-	-	97.4	2.6	-	-	-
롯데캐피탈	76.6	23.4	-	-	-	76.6	23.4	-	-	-
메리츠캐피탈	75.3	24.7	-	-	-	92.7	7.3	-	-	-
산은캐피탈	80.9	19.1	-	-	0.5	89.2	10.8	-	-	0.6
신한캐피탈	77.5	22.5	-	-	2.5	81.8	18.2	-	-	10.9
엠지캐피탈	82.9	12.4	-	4.7	-	96.3	1.9	-	1.8	0.1
우리금융캐피탈	82.7	17.3	-	-	-	96.2	3.8	-	-	-
키움캐피탈	89.2	10.8	-	-	-	79.7	20.3	-	-	-
하나캐피탈	90.5	9.5	-	-	-	98.2	1.8	-	-	-
한국투자캐피탈	71.2	28.8	-	-	-	83.7	16.3	-	-	-
현대캐피탈	73.6	25.3	1.1	-	-	74.0	25.5	0.5	-	-
현대커머셜	74.5	25.5	-	-	-	85.8	14.2	-	-	-

단위: %. 사채에는 회사채·사채할인발행차금, 차입금에는 은행차입금·당좌차월·관계사차입금·콜머니, CP에는 어음차입금·기업어음, ABS에는 유동화사채·유동화차입금을 넣었다. 사채·차입금·CP·ABS의 합이 100이고, 회색 열(이 중 외화)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외화자금 행의 비중이라 더하지 않는다. 현대캐피탈의 자산유동화증권은 차입금 중 내역으로 따로 적혀 있어 이 표에서는 차입금에 들어 있다. OK캐피탈은 2026년 1분기·반기 보고서가 없다(마지막은 2025.12 사업보고서). 한국캐피탈 표는 기말 금액이라 이 표와 9쪽 대조에서 뺐다.

원문 숫자끼리 맞지 않거나 보고서마다 같은 기간 값이 다른 경우(차입 평잔 0.5% 또는 이자율 0.02%p 넘게 다른 경우)는 가장 최근 보고서 값을 쓰고 데이터북에 목록을 남겼다(보고서 간 차이 6개 회사-기간, 항목 기준 9건: NH농협캐피탈 FY2021; NH농협캐피탈 FY2022; 하나캐피탈 FY2020; 하나캐피탈 FY2021; 현대캐피탈 FY2021; 현대캐피탈 FY2022). 신한캐피탈 2026.03 보고서는 2024 열에 2023 값을 다시 적어 그 열은 쓰지 않았다.

자료: DART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자금조달실적, FISIS 111V·023V / 더밸류연구소 계산

방법론과 한계

정의·검산·쓰지 않은 것

- 표본: 분석 A 25곳(할부·리스 총자산 1조원 이상 23곳 + 신기술금융사 2곳)에서 외국계 5곳(BMW파이낸셜·벤츠파이낸셜·폭스바겐파이낸셜·RCI파이낸셜·오릭스캐피탈)을 뺀 20곳. 외국 자동차 제조사 계열 4곳과 ORIX Corporation 계열 1곳이다(DART 최대주주 현황, BMW파이낸셜은 감사보고서 주석 기준). 제외 기준은 외국 자동차 제조사·외국 금융그룹이 직접 경영하는 계열사다. 남은 20곳 중 애큐온캐피탈(최대주주 Agora, L.P. 96.06%, 지분 인수 목적 SPC)과 롯데캐피탈(최대주주 일본법인 ㈜롯데파이낸셜 51.00%)은 최대주주가 외국 법인이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남겼다. 소속은 DART 최대주주 기준 5개.
- FISIS: 111V 이자손익(당분기)의 이자비용·차입금이자·사채이자, 023V 차입부채(차입금·사채·단기사채). 20곳 × 19개 분기말(2021.12~2026.06) 차입부채·차입금·사채·이자비용 값이 모두 있어야 계산하게 했다. 단기사채는 원응답 빈칸 22칸(7곳)을 0으로 봤다.
- 조달비용률(연율) = 분기 이자비용 × 4 ÷ [(분기초 차입부채 + 분기말 차입부채) ÷ 2]. 비용률은 2022.1Q~2026.2Q 18개 분기. 합산은 금액을 더한 뒤 나눴다. 분기 연율은 ×4로 했고 분기 일수(90~92일)는 보정하지 않았다.
- FISIS 검산: 차입부채 = 차입금 + 사채 380건 중 1백만원 넘는 불일치 0건. 차입금이자는 하위 계정(단기차입금·콜머니·장기차입금·관계회사차입금이자) 합으로 계산했다. 우리금융캐피탈 2022.1Q~2023.2Q는 차입금이자 행이 하위 합과 달랐다(0 또는 앞 분기분 합산). 하위 합으로 보면 이자비용 = 차입금이자 + 사채이자 + 요구불상환지분이자 360건 중 2백만원 넘는 불일치는 0건이다.
- DART: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자금조달실적 표. 표 이름 4가지를 찾고, 단위(백만원·억원·십억원)·기간·행을 읽은 뒤 행 합 = 합계를 검산했다. 천 단위 쉼표 자리에 마침표를 쓴 원문 오기 4개 값(3개 보고서-기간)은 쉼표로 읽었을 때 행 합이 합계와 맞는(차이 0.05% 이내) 경우에만 고쳤다.
- DART 이자율: 차입 행의 평잔 가중 이자율. 기간 값은 그 기간을 담은 가장 최근 보고서의 값(원문 숫자끼리 안 맞는 열은 제외).
- FISIS와 DART 비교: DART는 회사마다 연결·별도, 평잔 산식(기중평잔, 기초·분기말 단순평균), 액면·장부가 기준이 다르다. 이자율이 같지 않은 것은 기준 차이일 수 있고 원인은 확인하지 않았다.
- 쓰지 않은 것: 시장금리, 신용평가사 자료, 기사. 원인 해석과 평가.

자료: DART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자금조달실적, FISIS 111V·023V / 더밸류연구소 계산